

보도시점 2026. 4. 23.(목) 15:00 (2026. 4. 24.(금) 조간)

“산재환자 집 가까이에서 회복”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치료 모델」 외부 확산

- 근로복지공단, 홍성·군산의료원과 업무협약... 우수 재활서비스 전국 확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3일 재활인증병원*인 충남 홍성의료원, 전북 군산의료원과 산재환자의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산재환자에게 초기 치료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최소화 및 직업 복귀 촉진하고자 인력, 시설 등 전문적인 의료재활 기반이 우수하다고 인증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번 협약은 공단이 축적해 온 재활치료 역량을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공유해 산재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도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추진되었다.

그동안 공단은 전문 재활인력과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산재환자의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복귀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와 이동 부담 등으로 공단 소속병원 이용이 어려워 재활치료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재활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공단 재활치료 모델을 지역 공공의료체계에 직접 확산하는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재활치료 모델을 지역 의료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첫 사례로 산재 재활의료 전달체계 다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로복지공단과 홍성의료원, 군산의료원은 협약을 통해 ▲산재환자의 재활서비스 접근성 개선 ▲지역 간 재활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 ▲공단병원 재활모델의 공공의료체계 확산 기반 구축 ▲산재 재활의료 전달체계 다각화

등 상생형 재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단의 재활서비스를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약 130개소 규모로 운영 중인 재활인증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해 의료취약지역에서도 소외 없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보험급여국 요양급여심사부	책임자	부 장	김주영 (052-704-7481)
		담당자	팀 장	신현숙 (052-704-7491)

